

한은의 딜레마



박 승 덕
냉정과 열정사이

기준금리 인하를 놓고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은 물가안정과 고용시장 둔화로 금리인하 시기가 가까워졌다. 우리나라도 인하 기대가 높다. 고금리 대출이자에 허덕이는 서민층과 자영업자들은 금리인하를 손꼽아 기다린다. 그렇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7월 기준금리(연 3.5%) 동결 이후 “지금은 금리인하를 위해 차선을 바꾸고, 방향 전환을 언제 해야할 지 고민하는 상황이다”라며 “다만 언제 방향을 전환할 지 여부는 위험요인이 많아 불확실한 상태”라고 했다. 물가안정 등 일부 조건은 충족해 차선을 바꿨지만 실제 방향전환(금리인하)은 언제일 지 불투명하다는 의미다.

한은이 실제 깜빡이를 켜기 어려운 이유는 외환시장 움직임(원화 가치 하락)과 수도권 집값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위험요인이 많아서다. 최근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 가치가 약세다. 일부에선 1400원 돌파도 우려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

게 되면 수입물가 부담이 커진다. 환율이 상승하면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집값도 심상치 않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다. 공사비 급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지금 가장 싸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이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커지면서 전국 평균을 끌어올렸다. 지난 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전월대비 0.04%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0.19%)과 서울(0.38%)의 6월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집값 상승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의미다. 올해 들어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이 늘었다. 서울, 성남 등 일부 아파트 청약시장이 뜨거웠다. 금리인하가 유력하니 지금이라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야 한다는 수요가 많아졌다.

그러면서 가계부채도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9%를 기록했다. IIF 정기 보고서에 들어가는 59개국 가운데 4위다. 우리나라는 영끌바

람이 불었던 2019년 이후 5년 넘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3분기 100.5%로 100%를 돌파한 뒤 3년 반 만인 올 1분기에 처음으로 90%대로 내려온 것이 다행이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은행권의 지난 6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6조3000억원)은 작년 8월(7조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올 상반기 주택담대 누적 증가 규모(26조5000억원)는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이후 3년 만에 최대였다. 한은이 당장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이유다.

한은 금통위는 이달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항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고금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변수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당분간 금리인하를 결정할 수 있는 트리거가 부족하다. 금리는 타이밍이다. 먼저 미국의 금리인하가 현실화해야 한다. 그리고 가계부채·집값·외환시장 안정이 기준금리를 내릴 필요충분조건이다. 한은의 금리인하 방침이 복잡해졌다.

/금융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전당대회가 끝나도 엔딩 크레딧은 안 올라가요



기 지 수
서 예 진
(정치경제부)

영화가 끝나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 엔딩 크레딧은 말 그대로 영화의 ‘끝’을 상징한다. 기자에게는 ‘이 이야기가 끝났으니 현실 세계로 돌아오라’는 의미로 느껴진다.

하지만 현실 정치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지 않는다. 대통령 임기가 끝난다고 해서 여당이 사라지는 않는다. 혹은 어느 정치인이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해서 화면이 전환되고 스크린에 ‘주연 ○○○’라는 글씨가 뜨진 않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당대회의 슬로건을 ‘NEXT 보수의 진보’라고 정한 것

은 미래 정당으로 개혁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수’도, ‘진보’도, ‘NEXT’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한 달여의 기간 동안 당권주자들은 치열한 경쟁을 했다. 사실 치열한 경쟁이라는 말은 현상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그야말로 ‘이전투구’가 따로 없다.

전당대회를 거치며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으로 갈라졌다. 4·10 총선에 끝나고 당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외쳤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문자 무시’ ‘사과 방해’ ‘여론 조작’ ‘공소 취하 청탁’ ‘색깔론’ 등 지역적인 내용만 주목을 받고 있다.

위에 나열한 이야기는 반대 진영에서 나온 이슈가 아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도중에 나온 것이다. 오죽하면 당내에서 “이명박·박근혜 대선 경선을 보는 것 같다”는 한탄이 나왔을까.

급기야는 후보 연설 현장에서 의자가 날아다니는 모습까지 나왔다. 이런 폭력 사태는 보수 진영에서는 생소한 장면이다.

이러다보니 전당대회가 끝난 후 당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원래 당내 경쟁이 더 치열하고 아픈 법이지만, 그 과정에서 ‘마지노선’을 지키는 것이 기존의 정치권이였다. 그러나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무너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각을 세웠고, 골이 패였다.

이제라도 당권주자들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폭로들이 ‘반성하고 나아가자’는 취지인지, 아니면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것이 영화라면 전당대회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지만, 현실에서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새로운 지도부가 첫발을 내딛기 때문이다.

/syj@

오늘의 운세 7월 19일 (음 6월 14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등잔 밑이 어두우니 모임에서 만남 조심. 48년생 관찮은지 물어봐 주는 친구가 있어서 좋다. 60년생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니 흘려보내라. 72년생 조심할 것 간 밭의 차이로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84년생 지출이 과다하여 스트레스.
- 소** 37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라 했다. 49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는 하루. 61년생 온전한 새로움을 추구하지 마라. 73년생 작은 투자에 기쁨이 따른다. 85년생 내가 하는 일이 대단한 것 같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 견뎌보라.
- 호랑이** 38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해답이 보인다. 50년생 오늘은 양보와 겸손이 미덕이다. 62년생 뭐다 보면 가슴 벅찬 일이 생긴다. 74년생 열심히 하다 보면 운세도 열리는 발전 기세. 86년생 매사 일이 다 된 것처럼 기대하지 말도록.
- 토끼** 39년생 부처님 손바닥 안이니 너무 애쓰지 말자. 51년생 진흙탕물이 많은 물이 되는 날이다. 63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이다. 75년생 기대가 너무 크니 서운함도 크다. 87년생 취침 전에 명상으로 기도를 해 보면 답이 보일 터.
- 용** 40년생 친구의 소식에 청천벽력이다. 52년생 사소한 실수로 일이 틀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라. 64년생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했으니. 76년생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니 행동에 나설 때이다. 88년생 계속되는 호외에 고마움을 표시.
- 뱀** 41년생 해오면 일도 싫증이 난다. 53년생 후배와 갈등이 생기니 주의. 65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니 꾸준한 노력. 77년생 편하게 생각하면 죽은 나무에 공들여 봤자 일 것. 89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미리 메모를 해두자.
- 말** 42년생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보람 있는 하루. 54년생 오늘 준비해야 내일이 기다려지는 법. 66년생 조심해라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 78년생 직장에서 고생을 알아주니 기쁜 일. 90년생 나 못 먹음 밥에 재 뿌리는 행동은 하지 말도록.
- 양** 43년생 가까이 있다 해서 소홀히 대하지 마라. 55년생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게 되는 세상사. 67년생 감정절제를 잘해야 일이 성사. 79년생 자존감이 지나치니 주변이 불편. 91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 원숭이** 44년생 가는 곳마다 행운이 따르니 많은 소득이 발생. 56년생 익숙해지면 게을러지기 마련. 68년생 아직보다는 현상 유지가 최선이다. 80년생 금일은 일이 풀리니 스트레스도 풀린다. 92년생 사귀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 우선 의견통일을 해야.
- 닭** 45년생 달리지만 말고 주변을 돌아보라 보고 있다. 57년생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가득 해서 실수하게 된다. 69년생 우는 아이는 젖을 짜서 달래야 한다. 81년생 자신이 부족함을 인정하면 만사가 편하다. 93년생 오늘은 무조건 참는 것이 좋다.
- 개** 46년생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개척하려고 애쓰지 마라. 58년생 오후에 검은 옷 입을 일이 있다. 70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는 덕을 잇는 법이니 마음을 비워라. 82년생 오늘 은 이성 소개 인연의 경사가 이뤄진다. 94년생 오후 5시부터는 음주는 금물.
- 돼지** 47년생 계단 조심. 59년생 오늘은 금전 문제로 이득이. 71년생 금일 만남에는 약간의 망상이 따름. 83년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95년생 내 것으로 못 만들 것 같다고 남도 가지지 못하게 심술을 부리면 결국 내가 손해다.

김상회의 四季 명리학 학습

인생 2막을 시작하면서 명리 공부하는 시니어들이 많아졌다. 시니어들은 인생의 한 단락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는 나이이다. 그런 시기에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간을 내다보고 싶어 명리학을 연구한다. 인생 2막에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진 시니어들이 많다. 다짐도 해보면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건지는 잘 모르기도 한다. 지금껏 먹고사느라 정신없이 달리기만 했고 가족부양에 모든 신경을 쏟으면서 자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 적합한 공부가 명리학이다. 아득한 옛날에는 하늘도 땅도 없었다. 신도 존재하지 않았으니 천지만물을 창조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원리와 천지자연의 결과 이치를 자연계에서 존재의 유무를 말할 수가 없을 때 최소한의 지침서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명리학은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라 말하고 싶다. 사주는 한 사람의 모든 걸 담고 있고 자연의 이치를 미리 보여준다. 태어난 시점의 간지를 바탕으로 사람의 운명을 살피고 운세의 흐름을 짚어보는 학문. 사람 됨됨이가 어떤지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지 부귀 빈천의 정도 살면서 맞이할 길흉과 화복의 정도가 어떠한지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인생 2막을 시작하면서 공부하는 건 좋은 선택이다. 일단 자기 자신을 알아야 새로운 도전의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 2막을 가꾸는데 훌륭한 토대가 되는 명리학에 흥미가 없더라도 최소한 자기 팔자를 알아보고 사주에 담긴 자기 모습이 어떠한지 살피기를 권한다. 사주를 펴보는 것은 인생길을 미리 답사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인생 전환기를 맞아 명리학에 매진하는 시니어의 건투를 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7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80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학습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6	2	4	7	1	8	5	3
7	4	8	3	2	1	9	6	5
9	1	8	6	5	4	7	2	3
8	9	1	6	2	7	5	4	3
6	5	4	8	1	9	2	7	3
8	2	7	9	5	4	6	8	1
4	8	6	4	9	2	8	1	9
1	9	5	7	6	8	2	4	3
2	4	5	1	8	7	6	9	3

9	7	2	1	4	8	6	5	3
1	8	4	7	9	6	8	9	2
6	8	9	9	8	2	4	1	4
2	9	1	4	7	6	9	8	6
8	6	7	5	2	9	1	4	8
8	4	9	6	8	1	9	2	7
4	2	8	6	6	9	4	1	9
5	1	8	9	7	2	6	4	1
4	9	6	2	1	4	8	9	8